



自然환경 보존에 國民모두 同參해야 ……

金正男

山과 바다와 江이 모두 公害로 찌들어 간다는 보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올 여름에는 특히 전국의 주요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어 그 충격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이 人間生活에 얼마나 소중한 資源인지는 실제로 물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다는 사실만큼 그 귀중한 가치를 실감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 온것같다.

실제로 우리 政府의 治水정책은 태풍이나 대홍수에 대비하여 댐을 막고 제방을 보강하는 등, 물이 넘쳐서 생기는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집중해 온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도 나라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전국적으로 쓸곳은 많은데 쓸돈은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는 늘 진통과 갈등이 뒤따르는 것이 실정이다.

정부가 앞으로 수조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식수원 보호사업을 적극화 시키고 그 재원의 확보 방법으로 水道料金を 상향조정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다소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 드릴수 밖에 없을것같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머잖아 전국의 모든 江들은 회생불능의 폐허지역으로 급속하게 죽어갈게 뻔하기 때문이다. 料金を 올려서 그 돈으로 水源保護사업을 하자는데 불만과 異議가 있겠지만 나라의 살림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 방법밖에는 달리 도리가 없을것 같다.

그렇지만 몇조원을 투입하여 可視的인 사업들

을 벌인다고 해도 기대하는 만큼의 사업성과가 나타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는한 자연환경은 계속 파괴되어 갈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산을 들여서 파손된 환경을 정화하는 이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公害를 예방하는 환경보존 활동에 온 국민이 함께 나설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事業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밀고나가야 水資源 보호사업이 성공할수 있을 것이다. 國民意識을 전환시키는 努力에도 國家財政의 기능과 역할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政府도 認識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 社會의 行樂人口는 國民經濟의 능력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고 年中無休로 山과 바다와 江을 찾는 人口가 分別없이 환경을 훼손 시키는 한, 事後的인 努力만으로 우리들의 자연환경은 保存되기가 어렵게 되어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水資源을 오염시키는 근원이 몇개의 공장폐수 뿐이라고 착각한다면 정말 큰 문제다. 전국 어디를 가봐도 모든 江과 바다와 山들은 무자비하게 훼손되고 있다.

시골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그들은 도시사람들이 무섭다고 말한다. 자연을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共犯者라는 냉정한 國民的 反省이 절실히 要請되는 때라고 하겠다.

(前國會議員·本會理事·民正東海·太白·三陟區委員長)